

## 식량 보호주의 확산으로 애그플레이션 우려 가중

김 유 진 연구위원(jazzgene@hanafn.com)

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작황 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곡물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주요 생산국가의 식량자원 무기화가 확대되고 있다. 향후 공급망 차질 및 이상기후에 따른 경작지 감소 등으로 식량 보호주의 기조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. 이에 금융사는 가격 전가력이 낮은 1차 소재식품 기업 및 음식점 업종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, 해외 곡물자원 개발 및 애그테크 기업에 대한 영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.

### ■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곡물가격 불안이 주요 생산국가의 수출 통제로 가중<sup>1)</sup>

- 지난 5월 14일 세계 2위의 밀 생산국가인 인도의 대외무역총국(DGFT)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밀 수출 정책을 기존 자유에서 금지로 변경한다고 발표
  - 3~4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도 내 밀 생산량이 급감하였고, 수출 확대로 자국 내 공급이 감소하면서 인도의 4월 식량 물가상승률이 8%를 상회
- 이와 같은 주요 곡물 생산국가의 수출 통제는 연초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주요 곡물가격이 급등한데 더해, 전 세계 식품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
  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2년 들어 밀 가격이 약 60% 이상 급등하였고, 5월 중순 인도의 수출 금지 발표 후 밀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

### ■ 식량 안보를 위한 식량 보호주의가 주요 곡물에서 식품 부문으로 확대되는 모습<sup>2)</sup>

- 앞서 이집트, 헝가리, 세르비아, 알제리, 아르헨티나 등이 일부 곡물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세계 주요 밀가루 수출국가인 터키도 식품 수출 통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보호주의(food protectionism)가 확산되는 분위기
  - 국제식량정책연구소(IFPRI)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‘식량 보호주의’ 기조로 전환한 국가는 23개국에 달함
- 특히 인도는 밀에 이어 설탕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고, 말레이시아가 6월부터 닭고기 수출 중단을 발표하자 인근 국가의 식품시장에 경고등
  - 싱가포르의 닭고기 소비의 30% 이상을 말레이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 불가피


[1]“India looks to limit global concerns over wheat exports ban”, FT, 2022.5.14

[2]“Malaysia chicken export ban raises supply risks in Singapore, agency warns”, FT, 2022.5.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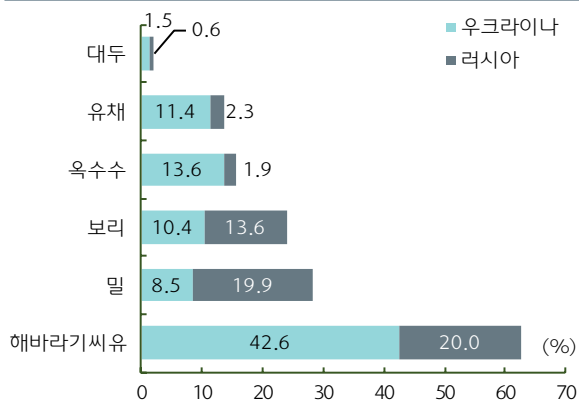
■ 공급망 차질 및 이상기후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식량 보호주의 기조 확산 속에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점증

- 연초 러·우 전쟁 여파로 촉발된 곡물가격 상승 추세에,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작황 악화가 더해져 주요 생산국가가 식량 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하였으며, 이는 공급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애그플레이션으로 발전될 소지
  - 세계은행은 2022년 곡물가격 강세가 지속되며, 특히 밀 가격은 중국 홍수, 미국 가뭄 등의 영향으로 40%(YOY) 이상 상승한다고 전망
- 최근 공급망 불안으로 세계화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,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경작지 축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식량 무기화 추세가 장기화될 전망
  - 채텀하우스(英 왕립국제문제연구소, 외교·안보 연구기관)는 이상기후로 2050년 전 세계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현 수준의 1/3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

■ 금융사는 가격 전가력이 낮은 1차 소재 식품 및 음식점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한편, 애그테크 기업에 대한 영업기회를 발굴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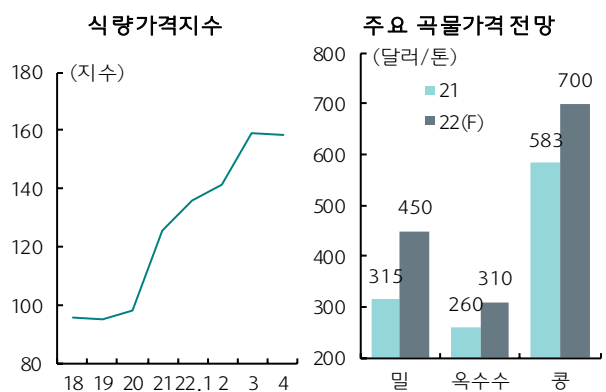
-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세 지속은 곡물 자급률이 저조한 국내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
  - 곡물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 음식료품에 6개월 후 영향을 미치고, 이후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가공식품에 영향
- 그 과정에서 국내 음식료 제조기업 및 음식점이 원가 상승 리스크에 노출되며, 특히 가격 전가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(1차 소재 식품 및 음식점)의 타격이 우려
- 따라서 금융사는 원가 부담으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여신관리 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며, 해외 곡물자원 개발 기업 및 친환경 농업 기업(애그테크 등)에 대한 영업기회를 발굴할 필요 

■ 러시아·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 비중



주 : 2018~2020년 평균 기준  
자료 : FAO STAT

■ 국제 식량가격지수 및 곡물가격 전망



주 : UN 식량농업기구(FAO), 세계은행